



정책정보

고열량·저영양 식품 동시 다품목 판별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매점 등에서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자가 수백 건의 제품에 대한 고열량·저영양 식품여부를 한번에 판별할 수 있는 ‘동시 다품목 판별 프로그램’을 개발·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.

- 이번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학교매점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·저영양식품의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학교매점 등의 판매

자들이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입니다.

※ 고열량·저영양식품 :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어린이 비만 및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

- 고열량·저영양 식품 판별을 위해서는 ①지정된 엑셀 서식을 다운받아 ②간식용/식사대용 및 제품 유형을

선택하고 ③제품의 1회제공량을 입력한 후 ④영양성분*표시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.

* 영양성분 : 열량, 당, 단백질, 포화지방, 나트륨 등

- 식약청은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·수입업체 및 학교매점, 우수 판매업소 등

판매자들이 고열량·저영양식품 판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교매점 등 매장에서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- 프로그램은 식약청 홈페이지 팝업존으로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으며, 판별 결과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
즉석섭취·편의식품 안전하고 편리하게 섭취하는 방법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각김밥·햄버거·샌드위치 등 별도의 가열·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된 즉석섭취 식품도 영양성분 표시 및 제조연월일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에 시간까지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습니다.

- 특히 2010년부터는 식품위생법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김밥·햄버거·샌드위치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같은 삼각김밥이라도 영양성분을 비교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
- 식약청은 또한 국·탕·덮밥 등은 단순 가열·조리만으로 섭취할 수 있는 즉석 조리 식품이므로 표시된 요리방법에 따라 가열·조리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.

- 이는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 재질의 용기·포장에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.

- 식약청은 아울러 새싹채소, 야채 등을 세척 및 절단하여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·포장된 신선편의 식품도 포장일시 등 기본적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,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냉장보관 되어있는지 보관 상태 및 보관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.
- 식약청은 즉석섭취·편의식품류에 대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, 소비